

쏘울스토리·카멋진남V-KOOL 광일리그 준결승 진출

아로마라이프배 제7회 무등기 광주·전남 사회인 야구대회

무등기 정상을 향한 광주·전남 사회인 야구인들의 5번째 대결이 펼쳐졌다. 광주일보사·아시아문화가 주최하는 아로마라이프배 제7회 무등기 광주·전남 사회인 야구대회 5주 차 경기가 지난 14일 무등중 야구장에서 진행됐다. 광일리그 8강전 두 경기가 치러졌으며, 쏘울스토리와 카멋진남V-KOOL이 준결승 무대에 진출했다. 쏘울스토리는 뉴욕야시장을 15-1, 4회 콜드승으로 꺾고 4강 티켓을 획득했다. 1회초 선취점을 내준 쏘울스토리가 이어진 1회말 공격에서 대거 6점을 뽑으며 전세를 뒤집었다. 2회에도 7득점에 성공한 쏘울스토리는 3회까지 15점을 만들며 일찍 경기를 마무리했다. 카멋진남 V-KOOL은 3개의 홈런포를 앞세워 12-8로 하나로야구단을 꺾었다. 1회 카멋진남의 주민호가 투런포를 쏘아 올리며 기선을 제압했다. 3회에는 윤명훈의 두 경기 연속 홈런이 나왔다. 앞선 16강전에서 한방을 기록했던 윤명훈은 3회 솔로포에 이어 4회에는 스리런까지 터트리며 파워를 과시했다. 하나로야구단의 윤영현이 투런포로 응수했지만 경기는 12-8, 카멋진남의 승

리로 끝났다. 15일 광주일고 야구장에서 열린 예정이었던 무등·광일리그 준결승 4경기는 우천으로 순연됐다. 한편 이번 대회는 광주광역시야구소프트볼협회가 주관하며 광주광역시체육회·전라남도체육회가 후원한다. 아름다운 가치를 강조하는 기업 아로마라이프(회장 이학재)와 KIA타이거즈도 지역 야구인들의 '가을 잔치'에 함께 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KS 1차전 10월 25일로 연기

KIA 타이거즈가 하루 더 기다려 한국시리즈 무대를 밟는다. '가을 비'가 '가을 잔치'의 변수가 됐다. 24일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국시리즈 1차전 날짜가 25일로 변경됐다. 지난 12일 롯데 자이언츠와 NC 다이노스의 준플레이오프 4차전이 비로 미뤄지면서 플레이오프와 한국시리즈 일정에도 변화가 생겼다. 이에 따라 두산 베어스가 기다리고 있는 플레이오프는 16일이 아닌 17일에 시작되고, 한국시리즈 첫 경기도 25일 치러진다. KIA는 25·26일 챔피언스필드에서 한국시리즈 1·2차전을 갖은 뒤 상대 안방으로 건너가 28·29·30일 원정 3연전에 나선다. 5차전까지 우승팀이 결정되지 않으면 다시 챔피언스필드로 장소를 옮겨 11월 1일과 2일 한국시리즈 6·7차전을 갖는다. 한국시리즈 일정 변경과 함께 KIA의 훈련 일정에도 변화가 생겼다. KIA는 14일 자체 총백전을 시작으로 모두 세 차례 연습경기를 통해 실전감을 다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진짜 경기'가 하루 더 미뤄지면서 연습경기 일정을 추가했다. 19일에 이어 휴식일로 잡아두었던 19일에도 야간 연습경기를 하며 감잡기에 나서는 KIA는 21일 주간 연습 경기로 한국시리즈를 위한 리허설을 끝낼 계획

이다. 합숙 일정은 예정대로 21일 시작된다. 경기 일정 변경에 따라 한국시리즈 미디어데이에 23일에서 24일로 옮겨 진행된다. 한편 KIA의 첫 번째 연습경기는 순조롭게 진행됐다. 동반 20승을 합작한 헥터와 양현종이 각각 백투와 홈런의 선발로 나서 각각 1이닝을 소화하며 몸을 풀었다. 헥터가 최고 스피드 146km를 찍는 등 1피안타 2탈삼진으로 위용을 끝냈다. 5타자를 상대한 양현종은 불넷 하나를 내준 뒤 2루수의 실책으로 1실점을 했지만 좋은 컨디션을 보여줬다. 지구 최고 스피드는 144km. 양현종은 "힘은 남친다. 스피드가 아직 부족하지만 전체적인 몸 상태는 좋다"며 "타자들도 컨디션이 좋은 것 같다. 실투를 놓치지 않았다"며 첫 실전 피칭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팻딘도 2이닝을 소화하는 등 선발진 중 세 명의 선수가 첫 연습경기 마운드에 올랐다. 이날 경기는 이명기-김주찬-버나디나-나지완-이범호-안치홍-김선빈-김민식 등 주전 선수로 라인업을 구성한 백투의 4-1 승리로 끝났다. 후반기 발목이 좋지 않아 고전했던 김선빈이 쾌조의 컨디션으로 멀티히트를 기록했고, 역시 발목부상으로 한 달여의 공백이 있었던 이명기도 안타를 만들었다. 김주찬·버나디나도 시원한 안타를 선보이는 등 10여 명의 공백에도 타선의 움직임은 좋았다. /김여울기자 wool@

'낙동강 터비' 승리 NC 플레이오프 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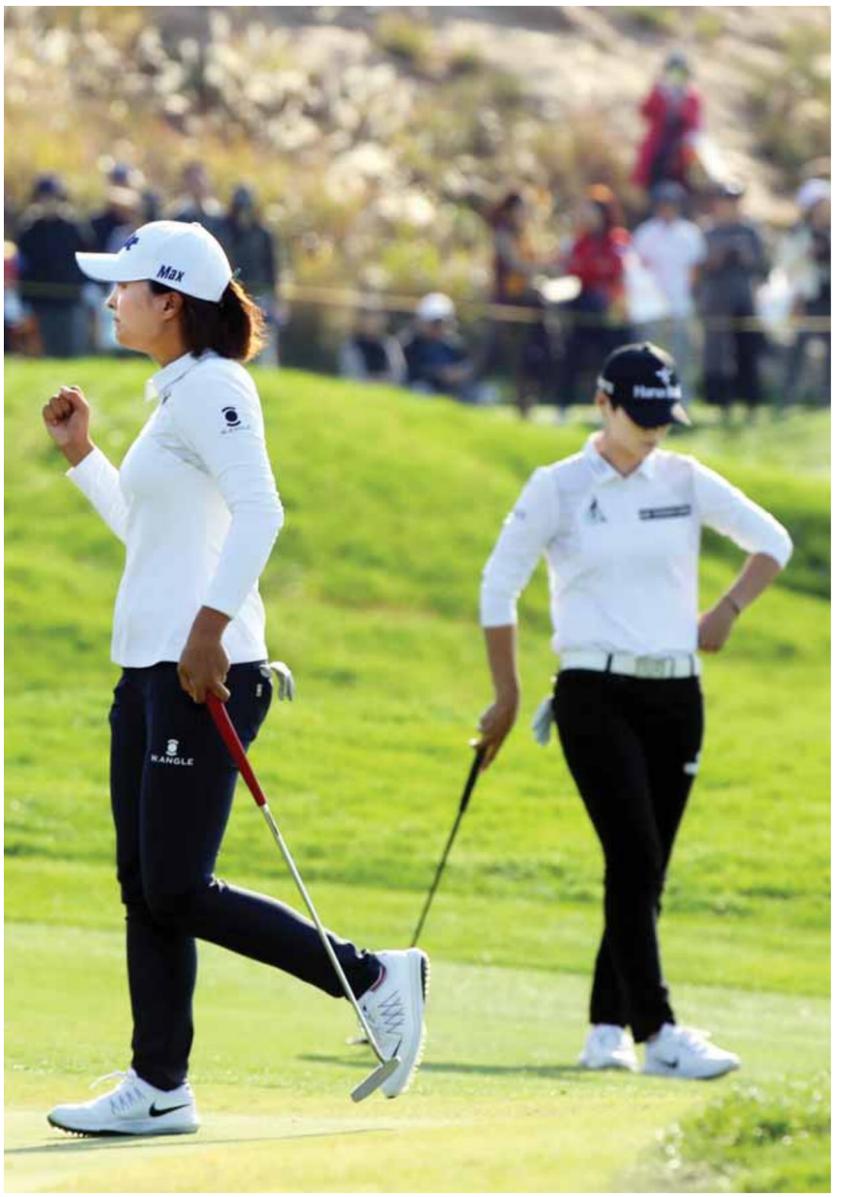
롯데 9-0 제압하고 3승2패...내일 두산과 격돌 한국시리즈 티켓을 놓고 '곰'과 '공룡'이 격돌한다. NC 다이노스가 15일 사직구장에서 열린 롯데 자이언츠와의 올 시즌 마지막 '낙동강 터비'에서 9-0 대승을 거두며 플레이오프 티켓을 가져갔다. 1차전 9-2승리를 거뒀던 NC는 이후 롯데와 승패를 주고받으면서 5차전에서 마지막 대결을 했다. NC 해커와 롯데 박세웅의 '관록'과 '힘'의 맞대결이 팽팽하게 전개됐지만, 박세웅이 5회 고비를 넘지 못하고 4이닝

6피안타 2볼넷 3실점으로 무너졌다. 흐름을 탄 NC는 5회에만 7점을 뽑아내는 등 장단 15안타로 9점을 만들었다. 해커는 6.1이닝 4피안타 2볼넷 8탈삼진 무실점의 호투로 팀의 3년 연속 플레이오프 진출을 견인했다. 후반기 뜨거운 질주를 한 롯데는 3위로 5년 만의 포스트시즌을 경험했지만, 이날 패배로 '가을 잔치'의 막을 내렸다. 한편 플레이오프(5전3선승제)는 17일 오후 6시 30분 두산 안방인 잠실구장에서 시작된다. /김여울기자 wool@

고진영 LPGA 우승...마침내 '1인자'

KEB 하나은행 챔피언십 제패 박성현·전인지 2·3위로 밀어내

순위	선수명	스코어
1위	고진영	(22.세이브프로)
2위	박성현	(22.세이브프로)
3위	전인지	(22.세이브프로)
4위	김세영	(22.세이브프로)
5위	유소연	(22.세이브프로)
6위	김민서	(22.세이브프로)
7위	김민서	(22.세이브프로)
8위	김민서	(22.세이브프로)
9위	김민서	(22.세이브프로)
10위	김민서	(22.세이브프로)



15일 인천 영종도 스카이72 골프앤리조트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KEB하나은행 챔피언십' 최종라운드 경기. 15번홀에서 퍼팅을 성공한 고진영이 주먹을 들어보이고 있다. 앞서 버디 기회를 놓친 박성현은 아쉬워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진영은 누구? 올해로 KLPGA 투어 4년차 데뷔 해 우승에도 신인왕 불발 2년차 3승 뎀 전인지에 밀리고 지난해 3승 하고도 박성현에 가려 브리티시 오픈 준우승 아픔 딛고 내년 LPGA 투어 출전 자격 얻어

올해 4년째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에서 뛰는 고진영(22)은 늘 정상급 활약을 펼쳤지만 한 번도 1인자에 올라보지 못했다. 데뷔하던 해 우승을 신고했지만 동기 백규정에 밀려 신인왕을 타지 못했고 2년 차 때는 3승을 올렸지만 전인지에 가렸다. 작년에도 메이저대회를 포함해 3차례 정상에 올랐지만 7승을 쓸어담은 박성현을 뛰어넘지는 못했다. 올해도 2차례 우승을 차지했으나 이정은의 활약에 미치지 못했다. 그런 고진영이 15일 인천 영종도 스카이72골프클럽 오션코스(파72)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 KEB 하나은행 챔피언십 최종라운드에서 4안타파(6타를 쳐 4라운드 합계 19안타파 269타로 우승했다. 박성현과 전인지를 각각 2위와 3위로 밀어냈다. LPGA투어 대회를 처음 제패한 고진영은 안시현, 이지영, 홍진주, 백규정에 이어 이 대회에서 LPGA 비회원으로서 우승한 5번째 선수가 이름을 올렸다. 고진영은 본인이 원하던 내년부터 LPGA투어에서 뛸 자격을 얻었다. 특히 고진영은 지난 2016년 브리티시여자오픈에서 준우승에 머물렀던 아픔을 씻어냈다. 전날 무결점 플레이로 2타타 선두에 나섰던 고진영은 최종라운드에서 박성현, 전인지와 챔피언십에서 대결했다. 엄청난 갤러리에 둘러싸여 치른 최종라운드에서 고진영은 안정적인 플레이로 차근차근 타수를 줄여나갔다. 2번홀(파3)과 3번홀(파3)에서 연속 보기를 적어내 박성현에게 선두를 내줬지만 고진영은 흔들리지 않았다. 5번

홀(파5) 버디로 분위기 추스는 고진영은 7번(파5), 8번(파3), 9번홀(파4)에서 3연속 버디를 잡아내 선두 자리를 되찾았다. 11번홀(파4)에서 60cm 버디 퍼트를 놓쳤지만 이어진 12번홀(파3) 1.5m 버디 기회를 놓치지 않는 감성장을 과시했다. 275야드 짜리 15번홀(파4)에서 박성현이 4m 이글 찬스를 살리지 못하자 고진영은 3m 버디로 응수했다. 승부는 16번홀(파4)에서 사실상 갈렸다. 박성현과 전인지가 나란히 1타씩 잃은 반면 고진영은 1.2m 거리의 까다로운 퍼퍼트를 성공, 3타차 여유를 챙겼다. 고진영은 17, 18번홀을 차분하게 파로 막아내 2타차 완승으로 경기를

마무리했다. 지난 2015년 이 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던 박성현은 이날 4타를 줄였지만 두차례 3퍼트 실수 탓에 또 한번 준우승(17안타파 271타)에 만족해야 했다. 박성현은 시즌 3승 고지를 밟지는 못했지만 상공랭킹 1위를 굳게 지켰고 올해의 선수 포인트와 평균타수, 세계랭킹에서 각각 유소연, 렉시 톰프슨(미국)과 간격을 좁혔다. 3안타파 69타를 친 전인지는 3위(16안타파 272타)로 시즌 첫 우승을 다음으로 미뤘다. 2타를 줄인 유소연은 공동 8위(10안타파 278타)에 올라 세계랭킹 1위를 간신히 지켰다. /연합뉴스

완델손 헤트트릭 광주 FC 잔류 희망



프로축구 광주 FC가 11경기 무승 부진에서 탈출하며 기사화됐다. 완델손이 14분 만에 헤트트릭을 완성하면서 '난세의 영웅'이 됐다. 광주 FC는 15일 광양전용구장에서 열린 전남 드래곤즈와의 2017 K리그 클래식 스피릿 그룹 B 1라운드 경기에서 세 골을 몰아 넣은 완델손을 앞세워 4-2 승을 거뒀다.

전남과 스피릿 그룹 B 1R 4-2 승 11위 인천과 격차 7점차로 좁혀

지난 7월 22일 전남전 승리 이후 11경기 연속 승리를 신고하지 못했던 광주는 스피릿 라운드 첫 경기를 승리로 장식하면서 꺼져가던 잔류 불씨를 살렸다. 승점 3점을 보탠 12위 광주는 전남 포항 스틸러스에 0-5 대패를 당한 11위 인천 유나이티드와의 격차를 7점 차로 줄였다. 또 이 승리로 광주 김학범 감독은 부임 후 8경기 만에 승장이 됐다. '루키' 나상호가 골전쟁의 신호탄을 쏘았다. 전반 24분 헤딩 슈팅이 골대를 비껴가면서 아쉬움에 머리를 갸웃한 나상호가 2분 뒤에는 활짝 웃으며 그라운드를 돌았다. 송승민의 크로스를 받은 나상호가 헤딩으로 골대를 가르치면서 선제골의 주인공이 됐다. 그러나 승리는 쉽게 찾아오지 않았다. 전반 31분 광주 골키퍼 윤보상이 슈퍼세이버를 선보였지만 1분 뒤 전남 페체신의 머리를 막지는 못했다. 광주는 1-1로 시작된 후

반 6분에는 전남 최효진에게 역전골을 허용했다. 그러나 후반 13분 김학범 감독이 돌아온 예비역 임선영을 빼고 완델손을 투입하며 승부수를 띄웠다. 카드드는 적중했다. 완델손이 투입된 지 1분 만에 오른발 슈팅으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후반 20분에는 완델손이 전남 골키퍼 이호승의 태클에 넘어지면서 페널티킥을 얻어냈다. 직접 키커로 나선 완델손은 침착하게 골키퍼를 속이며 역전골을 연출했다. 완델손의 기세는 거침없었다. 후반 27분 헤트트릭에 마침표를 찍는 세 번째 골까지 만들었다. 이종민이 오른쪽에서 중앙으로 띄운 공을 본즈가 힐패스로 완델손에게 연결했다. 그리고 완델손은 오른쪽으로 시원하게 골망을 흔들면서 4-2를 만들었다. 이후 광주는 전남의 파상공세를 막아내면서 승리의 기쁨을 만끽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